

사설

새로운 길 가야 할 21학번

코로나19가 유행한 지 1년.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비대면과 생활 방역은 우리 삶의 새로운 규칙으로 정착했고 소통의 기본값은 온택트로 변했다. 정부와 의료진, 시민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제2부본부장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위험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방역 활동이 우리의 새로운 생활양식이자 일상이 되리라는 것이다. 그의 말대로 우리의 일상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삶은 계속된다. 올해도 신입생이 들어왔다. 학교는 어느 3월처럼 새로운 시작을 맞는다.

새내기를 맞이하는 모습부터 달라졌다. 지난 22일과 23일, 양 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는 대면 입

학식을 대신한 입학 주간 행사를 개최했다. 각 단과대 차원의 새내기 맞이 행사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입학 주간을 거쳤지만 대부분의 신입생들은 학교에 없다. 개강을 하더라도 강의 대부분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질 테고, 학교에 나오는 학생을 찾긴 힘들 것이다. 21학번 새내기들은 선배나 교수보다 에브리타임 게시판을 먼저 찾는다고 한다. 온라인을 통해 학사 정보를 얻고 선배, 동기와 친목을 도모하는 모습이다. 학기 초 진행되는 몇몇 온라인 행사를 제외하면 학교 구성원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20학번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입학한 지 1년이 지난 이들 또한 평범한 대학 생활을 해보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모두가 처음 맞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온

라인 활동은커녕 강의조차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학년 재학생들도 고민이 많은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적응했던 학교생활은 순식간에 변했고 갖은 계획에도 큰 변동이 생겼다. 얼굴을 마주하고 부실에 모이는 것을 전제로 하던 각종 동아리와 학생 단체는 신입 부원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시름시름 앓아오던 학생 자치는 치명타를 맞았다.

여전히 낯설지만 우리는 이 뉴노멀에 적응하고 또 바뀌어가고 있다. 학교는 이캠퍼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학습법 특강을 개설해 수업의 질을 높이하고자 했으며 온라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각종 행사 및 안내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양 캠퍼스 총학생회는 SNS를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했고, 비대면 강의 우수 사례와 피해 사례를 조사해 학교

에 전달하는 등 학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힘썼다. 신입생들을 위해서는 수강 신청 안내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이들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도 각자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힘들고 슬프다고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꽃과 같이 피어나는 3월이다. 코로나19의 위협이 아직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지만 우리 삶의 모든 기쁨과 행복마저 곁을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올해도 주어진 것들을 활용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온택트의 이점을 살려 학교 생활을 지속하고, 직접적인 만남 대신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이어갈 것이다. 새로운 학기의 시작과 함께 학교와 학생들에게도 코로나19 이전의 생기가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세시봉

철없던 행동



이현정 기자
pr3417@khu.ac.kr

2월 초, 한 커뮤니티에 ‘현직 배구 선수 학교폭력 피해자들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익명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현직 배구선수들이 피해자들에게 21가지에 달하는 폭력을 가했다는 내용이 상세히 설명돼 있었다. 쌍둥이 배구선수 이재영·이다영이 중·고등학교 시절 배구 선수단의 동료 학생들에게 폭력 행위를 일삼은 것이다. 그중에는 금품갈취, 언어적·신체적 폭력 등이 포함돼 있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두 선수는 이전까지 배구 중계뿐 아니라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도 술하게 등장한 바 있다.

해당 글이 게재된 후, 두 선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대중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두 선수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해당 회차가 삭제되는 등 방송계 역시 발 빠르게 그들을 ‘도려내기’ 시작했다. 구단과 배구협회에서도 응당한 징계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하지만 구단은 ‘무기한 출전 정지’라는 모호한 징계를 내놓았다.

한국배구연맹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학교폭력 관련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것이며, 해당 규정으로 과거의 일까지 소급 적용하는 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설위원회의 새로운 규정에 의해 두 선수에게 징계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두 선수가 충분한 제재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배구연맹이 ‘충분한’ 제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들을 용서하는 건 옳음이 피해자의 몫이다.

연예계, 스포츠계 할 것 없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증언 글들이 앞다투어 올라오고 있다. 자신의 폭력을 시인한 가해자들이 올린 사과문에는 공통된 부분이 있다. 그들의 폭력을 ‘철없던’ 시절의 행동이라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과거를 현재와 완전히 경계 지어버리는 말이다. ‘철없던’이라는 단 세 글자로 자신의 과오와 잘못을 청산하는 건 불가능하다. 피해자들이 고통받던 학창 시절과 상처를 세 글자로 압축시키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일이다. 누구에게나 어리고, 철없던 시절은 존재한다. ‘어렸기에’라는 말이 폭력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우리의 역할

어디로 가야 하죠, 선배님



허지영 기자
jy000224@khu.ac.kr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시험 보러 갔다가 캠퍼스에서 길을 잃었다”는 글을 본 적이 있다. “과잠이라도 입어야 경희대생인 것을 실감하겠다”는 글도 있었다. 문득 ‘신입생들은 우리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었다.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경희대학교 캠퍼스’, 그리고 ‘경희대학교 학생’이라는 정체성이 신입생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환기하게 된 것이다.

신입생들이 느꼈던 공허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듯하다. 올해 수험생 중 반수생 비율이 9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는 기사도 눈에 띈다. 신입생들이 반수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대학에 대한 소속감 저하, 원

격수업으로 인한 실망감 때문이 아닐까. 신입생이 된 이들의 갑갑한 심정과 비애는 취재를 통해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 인터뷰했던 신입생 대다수에게서 입학에 대한 설렘과 기쁨보다는 아쉬움과 체념을 느꼈기 때문이다.

대학은 수험생들이 꿈을 실현하는 공간이자, 처음 마주하는 사회다. 신입생들이 우리학교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구성원, 우리의 몫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작년의 우리 또한 모두 서툴렀지만, 금세 비대면 소통, 새로운 방식의 커뮤니티에 적응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 가장 배려 받아야 했을 새내기들이 가장 소외됐던 것은 아닐까. 각자도생하기 바빠 가장 큰 변화를 겪었을 신입생들을 뒷전으로 미뤄둔 것은 아닐까.

작년의 혼란에 대해선 “모두가 처음”이라는 변명을 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다르다. 그들이 우리학교의 울타리 안에서 새내기만의 처음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만평 길 잃은 새내기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균태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김가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솔디자인 | 인쇄

옴니퍼매디